

영국의 문학취미와 문학독자

아놀드 베네트의 公衆的 선택태도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일반적으로 양순한 시민들에게 있어 자신의 나라의 고전문학이란 때로 친근하지도, 믿기지도 않으며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작품활동을 했던 영국의 작가 아놀드 베네트(Arnold Bennet)는 그의 문학안내서 서두를 시작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교사들에 의해서 셰익스피어를 일생의 원수로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이 블레이크를 셰익스피어처럼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나만 해도 어렸을 때 敵意를 가지지 않았던 저작가는 토머스 브라운卿 뿐이었다. 그는 영국의 文體에서 누구도 능가하지 못할 문장으로 꼽힌다. 그래서 그의 저서 「醫師의 종교」를 어느날엔가 별 생각없이 사게 되었다. 그러나 서문을 읽고, 드디어 본문의 한두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재미도 호소해오지 않음을 알게 됐다. 마침내 그 책은 너무나도 쉽게 던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브라운 이야기가 나오면 참으로 쉽게 ‘그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나는 그 책을 샀고, 한번은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제로 보통사람들의 고전적 문학적 경력일 수 있다”고 그는 이어서 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물론 진리의 양면성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문학적 가치와 실제적 독서능력의 균형

베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지겨울만큼 偉大化돼 있다는 측면과 브라운이 과장적일만큼 평가돼 있다는 측면의 교차이다. 이 교차점 속에서 평균적 독자들의 문학취미는 성장한다. 그의 저서 「문학취미」(Literary Taste)는 바로 이 상징적 문학가치와 실제적 읽기 수준의 균형점을 안내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며 씌어진 책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선정은 대담하게 생략된 大家들과, 과감하게 버려지고 남은 작품들로 구성되면서 우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읽기 싫다고 읽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역시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기본 「로마제국흥망사」야 말로 그 유명도만큼 재미있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차라리 의무이다. ‘자

베네트의 영국문학목록은

원산지에서의 독자취향과

우리의 외국문학 수용에 어떤 편차가

가로놓여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전문영역에서의 작품선택과

일반독자영역에서의 작품추천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그의 목록은 무엇보다도 ‘읽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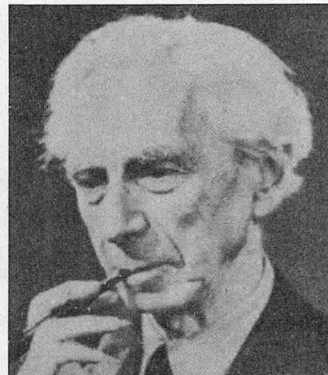
우리에게 많은 반성의 계기를 제시한다.

신을 의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느낌’ 하나만으로 ‘자기 전에 꼭 한장을 더 읽어야지’라고 말하게 하는 책일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읽기의 전통이고 규칙이다. 그것이 사람 스스로가 만든 문화의 전통이고 규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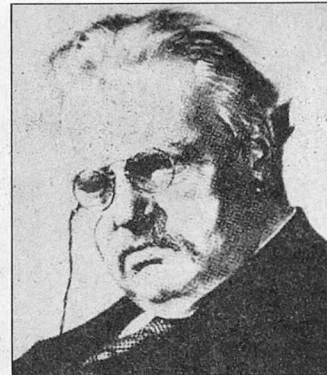
이 규칙은 너무나 읽기 쉬운 것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조지 엘리엇의 「사이러스 마이나」나 브론테 姉妹의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은 너무나 읽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통속잡지에서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벼운 소설들 이상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고전적 가치화가 이미 되었고 따라서 색커리의 「허영의 도시」와 함께 오히려 고전으로서 읽는다는 일이 마음 편하고 즐거울 수도 있다. 이것은 모순인 것 같지만 문학읽기란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는 게 좋다. 이것이 베네트의 또다른 지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 선별의 다양함 속에서 문학취미를 형성한다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운 것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태도를 정리한다. 문학취미라는 것이 원래 자신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만으로, 어느 것도 힘들고 읽지는 않는다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보는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문학취미란 그 나름대로 까다로운 몇가지 전제들을 첨가해서만 가능하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책속에 파문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문학애호가 한 주일에 한권씩만 살 수



버틀랜드 러셀



체스터튼

있는 6펜스나 1페니만을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문학읽기란 눈도 만족해야 하고 손도 만족시켜야 하며 보다 풍족히 소유하고 있다는 마음의 만족도 이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읽기의 시간과 분량을 넘어서는 책의 소유가 기본적 조건이다.

둘째는 문학에 대한 친근감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 친근감이란 보다 포괄적인 鑑賞眼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영문학백과사전」도 한권 사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選集’과 ‘全集’도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셰익스피어란 아무리 학교에서 敵意를 가지게 되었더라도 다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째는 고전에 대한 이해이다. 왜 읽을 수 없어도 고전적 작가의 위대한 명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렇다. 원래 고전적 작가란 그의 명성을 열렬히 애호하는 소수의 독자에 의해서 정립되고 유지되어가는 작가이다. 그리고 이 극소수의 열렬한 애호가들 역시 끈질긴 忍耐에 의해서 이 명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성은 지속되는 반복의 강조에 의해서 전수된다. 이 반복이 중단되면 아무리 열렬한 애호가도 역시 고전화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결국 읽지는 않아도 일반독자에 의해서 수용된다는 것의 힘은 중요한 것이다. 일반독자가 동의하느냐 안하느냐가 가장 큰 가치의 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동의의 몫을 한다는 것만도 문학취미의 대단한 영역일 수 있는 것이다.

낮익은 작가의 낮익지 않은 작품들

베네트의 이러한 견해는 일상적 평균적 독자들에게는 의외적이면서도 핵심적이며 신선한 지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외국문

학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은 반성의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의 외국문학 수용은 대부분 외국문학을 수확하게 된 어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선택기준은 바로 열렬한 애호가에 의해서 전수되고 평가되는 작품들의 것이다. 따라서 수용된 작품의 질과 수준은 높은 것일 수밖에 없게 되지만, 실제로 읽기에는 평균적으로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문학수용은 특히 고전작품 위주이다. 최근에 와서 시의적 베스트셀러 소설들이 번역되기 시작한 했지만 이 역시 미국과 일본에 제한돼 있다. 그 결과는 작품 원산지에서의 평균적 독자의 취향과는 얼마쯤 거리가 있는 것으로 외국문학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偏差를 만들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베네트의 문학감상 목록은 영국문학 수용에 있어서 이 편차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목록을 거론하는 이유이다.

베네트의 목록은 공중적 독자를 위한 것이므로 그 版本마저도 대중적 시리즈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판 「에브리맨스문고」 「템플클래식문고」 「스코트문고」 「세계고전문고」 「영국문인문고」와 일부 옥스퍼드, 맥밀란版을 포함하고 있다. (베네트가 작고한 해가 1931년이니까 물론 이 版本들은 그 이전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목록에서 우리는 낮익은 많은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 이것도 바로 우리의 문학읽기 취향이 서구문학의 30년대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목록에서 낮익은 작가의 낮익지 않은 작품명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전문영역에서의 작품선택과 일



찰스 램



버지니아 울프

반독자영역에서의 작품 추천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다. 보다 전문적인 문학독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차이는 또 다른 관점을 유발할 것이다.

여하간 영국작품의 영국적 선택의 의미가 이 목록은 제시한다. 표기된 바와 같이 한 작가에 있어 어느 작가는 '全作品集'이, 어느 작가는 '選作品集'이라는 낱어까지도 이 목록에서는 의도적인 것이다.

목록에 있는 期別표시는 독자가 책을 수집하는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고, 추가목록은 저자가 추후에 보완한 것을 뜻한다. 이제 목록을 보기로 하자.

베네트의 영국문학 목록

<제1기>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 리처드 후커 「교회정치와 법칙」
- 휴 래티머 「說教集」
- 프랜시스 베이컨 「論文集」 「학문의 진보」
- 존 번연 「天路歷程」
- 도로시 오스본 「윌리엄 템플에의 書翰集」
- 존 이브린 「日記」
- 세익스피어 「작품집」
- 벤 존슨 「희곡집」
- 존 던 「全詩集」
- 존 밀턴 「詩集」
- 토머스 드라이든 「古代英詩選」
- 에이브라함 카울리 「영국詩集」

<제2기>

- 존 로크 「哲學작품집」
- 아이작 뉴턴 「原理」
- 길버트 베네트 「그들 자신의 時代史」
- 조나단 스유프트 「걸리버 여행기」 「桶이야

기」

다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 (第1部) 「疫病의 해의 記錄」

- 조지 버클리 「人間知識의 原理」
- 사무엘 리처드슨 「클라리사」
- 헨리 필딩 「톰 존스」 「아멜리아」 「조셉 앤드류스」
- 데이비드 흙 「隨筆選」
- 로렌스 스톤 「感傷旅行」
- 토비아스 스모테트 「프랑스와 이탈리아 紀行文」

- 아담 스미드 「國富論」
- 사무엘 존슨 「詩人傳」
- 제임스 보스웰 「존슨傳」
- 헨리 맥켄지 「感情의 사람」
- 에드워드 기번 「로마帝國興亡史」 「自敘傳」
- 토머스 페인 「인간의 권리」
- 길버트 화이트 「셀본의 博物史」
- 아더 영 「旅行記」
- 토머스 맬더스 「人口論」
- 제인 오스틴 「小說集」

<제3기>

- 윌터 스코트 「웨이버리」 「아이반 호」 「붉은 장갑」 「海賊」
- 마이클 스코트 「톰 크린글의 航海日記」
- 로드 리튼 「폼페이 최후의 날」
- 해리슨 에인스워드 「런던 타」
- 찰스 리드 「僧院과 爐邊」
- 찰스 킹슬리 「西쪽으로」
- 샤르트 브론테 「제인 에어」
-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 엘리자베드 카스켓 「샤르트 브론테傳」
- 조지 엘리엇 「사이러스 마이너」
- 화이트 멜빌 「劍鬪士」

- 사무엘 버트러 「商人의 길」
-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로버트 스티븐슨 「유괴되어서」 「젊은 사람을 위해서」
- 조지 키싱 「老女人」
- 찰스 램 「작품집」 「書翰集」
- 윌리엄 해즐리트 「英詩人과 喜劇」 「作家論」
- 토머스 드 킨시 「영국인 아편중독자의 고백」 「영국의 湖水와 湖畔詩人의 기억」
- 토머스 칼라일 「프랑스 혁명」 「크롬웰」 「영웅 및 영웅숭배」
- 조지 핀레 「비잔틴帝國」
- 찰스 다윈 「種의 起源」
- 존 밀 「自敘傳」 「代議政治論」 「공트와 實證論」
- 알렉산더 스미드 「꿈의 村落」
- 존 러스킨 「일곱개의 燈」 「胡麻와 百合」
- 허버트 스펜서 「教育論」
- 토머스 헉슬리 「自然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講義와 俗人說教集」
- 윌터 페이터 「想像의 畫像」 「享樂主義者 마리우스」
- 리처드 그린 「英國人民史」
- 오스카 와일드 「희곡 · 시 · 수필집」
- 윌리엄 워즈워드 「全詩集」
- 존 키츠 「詩작품집」
- 메슈 아놀드 「全詩集」
- 엘리자베드 브라우닝 「詩작품집」
- 로드 테니슨 「詩작품집」
- 로버트 브라우닝 「詩작품집」
- 크리스티나 로제티 「詩작품집」

<제4기>

- 조지 메리디드 「에고이스트」 「喜劇論」
- 토머스 하디 「狂亂의 무리를 떠나서」 「테스」 「토박이의 귀환」 「薄命兒 주우드」 「詩集」
- 레이야드 키플링 「정글북」 「여러가지 발명」 「兵營의 民謠」
- 헨리 제임스 「테지 밀러」 「부인의 초상」
- 버너드 쇼 「유패한 희곡」 「불쾌한 희곡」
- 「凡人과 超人」 「聖 존」
- 조셉 콘라드 「로오드 짐」 「청춘」
- 코난 도일 「셜록 홈스의 모험」
- H.G. 웰즈 「우연의 車輪」
- 아놀드 베네트 「老妻이야기」 「책과 인물」 「著者에 대한 眞理」
- 콜드위디 「포오사이트 家」

- 서머셋 모음 「인간의 굴레」 「달과 6펜스」 「희곡집」
- 밀링턴 싱그 「서쪽나라의 건달」
- A.A 밀든 「제2 희곡집」 「승리의 날의 희곡」
- E.M. 포스터 「印度에의 길」 「하워드의 최후」
- D.H. 로렌스 「채털레이부인의 연인」 「아들과 연인」 「무지개」 「무의식의 환상」
- 맨스필드 「短篇選」
- 버지니아 울프 「燈臺로」 「제이코브의 방」 「델로웨이 부인」
- 찰스 모건 「거울 속의 초상」
- 울더스 헉슬리 「이야기 · 수필 · 詩」 「연애 대위법」 「용감한 신세계」 「무서운 침입자」
- 이브린 워 「쇠퇴」
- 버틀랜드 러셀 「나의 信條」 「教育論」 「幸福論」 「자유에의 길」
-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물리학적 세계의 본질」
- 히레어 벨로크 「로마에의 길」 「노예국가」
- 체스터튼 「이야기 · 수필 · 詩」 「찰스 디킨스」 「문학에 있어서 빅토리아 시대」 「自敘傳」
- 에이츠 「後期詩集」 「戲曲選集」
- T.S. 엘리엇 「詩集」 (1909-11) 「엘리자베드시대적 隨筆」
- 제임스 조이스 「室內樂」 「더블린 市民」 「젊은날의 예술가 초상」 「울리시즈」

(추가)

- 버너드 쇼 「메도세라시대에 돌아가라」 「知的 婦人을 위한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 화이트헤드 「과학과 현대세계」
- 로저 프라이 「視覺과 意匠」
- 버지니아 울프 「一般 讀者」
- 에드먼드 브란덴 「전쟁의 餘韻」
- 코난 도일 「바스카비유의 獵犬」
- 체스터튼 「木曜日 男子」
- 밀튼 「4개의 희곡」
- 울더스 헉슬리 「크롬웰로우」
- (이 목록에서 상당수의 시집은 여기에 옮겨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알려진 시인 이외의 30년대 이전 시집까지 다시 제목을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